



‘여행마을’ 동호회 회원들은 매달 삶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 자연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 들로 ... 바다로 ... 산으로 ... 어디라도 좋다

##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마을’

40여 회원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자연 속으로’  
‘새 세상 경험’ 통해 하나의 공동체 만들어  
삶의 활력 + 건전 여행문화 조성 ‘앞장’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여행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무엇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여행은 자신을 젊어지게 하는 샘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인도의 정치가 카우틸라는 ‘동행없이 여행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행, 의미 있는 여정에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더한 사람들이 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연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여행마을’ 동호회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03년 개설된 ‘여행마을’(http://cafe.daum.net/tourvillage2)의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2천800여명이나 된다. 온라인 상에서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이들은 매달 한차례 정기모임과 정기여행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회원수도 300여명에 달한다.

회원들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함께 영화도 보고, 술잔도 기울이면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회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정기여행 날은 매달 셋째 주 일요일이다.

여행지 선정은 이우철(35)회장과 운영자들이 맡는다. 여행사이트 검색과 추천, 사진답사 등을 통해 여행지를 선정 한 뒤 선착순으로 정기여행 참가 신청을 받게 된다.

5년째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이 씨는 “자체적으로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참가하는 만큼 회원들의 호응이 크다”고 말한다.

주 5일제 근무 확산과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회원수가 부족 늘어

동호회 운영을 하는데 힘든 점도 있지만 회원들과 알지 못하던 곳을 찾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동호회 활동의 매력이다.

이 씨는 “동호회 회칙을 마련해 건전한 모임, 여행을 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며 “휴가철만 되면 좋은 여행지를 묻는 사람들의 문의에 정신이 없지만,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왔으며 여행에 대해 얘기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행 전문가’로 통하는 이씨는 여행을 할 때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한다.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크면 그 여행은 실패하는 여행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행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행지에 대한 사전 공부도 필수하다고 말한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회원들의 만남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

도 한다. 이우철 회장은 동호회에서 아내 권은경(36)씨를 만나 가족을 이루었다. 김영동(35)씨도 ‘동호회 커플’로 올해 강신애(여·27)씨와 백년가약을 맺어 달콤한 신혼 생활에 빠져 있다.

김 씨는 “화원을 운영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만 하는 게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여행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며 “길도 잘 모르고 선뜻 길 나서는 게 쉽지 않았는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소도 얻고 좋은 인연도 얻었다”고 말한다.

동호회 내 불린 소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김 씨는 신입 회원들이 스스럼없이 동호회 회원들과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마땅한 유희 문화 없이 술만 먹는 동호회가 아니라 여행도 가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

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길에 오르는 게 만만치 않은 여성 회원들도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마음껏 여행을 다니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경화(여·30)씨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여행 다니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아서 많은 여행을 다니지 못했었다”며 “지금은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든든한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지난해 9월 회원들과 함께 남이섬을 갔었는데, 혼자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다면 춘천까지 먼 거리를 갈 엄두도 못했을 텐데 회원들과 가을을 먼저 느끼고 올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기회가 된다면 회원들과 제주도도 꼭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후배의 추천을 통해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이용순(여·33)씨도 여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여행을 통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여유가 있는 만큼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강원도 산양목장이나 경포대 등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자연을 직접 접하면서 한결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고 말한다.

“먼 거리 여행은 쉽게 임두가 나지 않는데 정기 여행을 나가면서 알지 못했던 곳을 알고 감탄을 하곤 합니다. 회원들끼리 자기만의 노하우를 교환할 수도 있고 ‘여행마을’을 통해 여행의 매력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일본 3박 4일**

299,000

419,000 / 469,000

969,000

1,399,000

299,000

**일본 클럽 - 부산 3박 4일**

549,000 / 699,000

후쿠오카 3박 4일

후쿠오카 3박 4일 (에어리프트 포함)

**일본 미니판**

후쿠오카 3박 4일 499,000

후쿠오카 3박 4일 1,299,000

**일본 대상 여행 상품 기획**

4월 445,000

5월 535,000

6월 625,000

7월 289,000

233-5900